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랑과 소유를 통한 다층적 욕망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연구

-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 재 희

사랑과 소유를 통한 다층적 욕망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연구
-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

조 병 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 재 희

인 준 서

박재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6월

심사위원장 임상빈 (인)

심사위원 조병왕 (인)

심사위원 박영근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24년 11월에 전시한 석사학위 청구전 〈Fancy Fetish〉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업의 주제와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Fancy Fetish’는 직역하면 ‘멋진 집착’이라는 의미로, 이는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사회 속에서 개인의 욕망을 노출하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에게 있어 예술은 억압된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매개이자,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감정과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해방의 통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의 작업은 감정과 욕망, 그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소유’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나는 ‘사랑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이 사랑이 지닌 이중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유욕은 나의 작업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내가 직접 겪어온 사랑의 양면성과 소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욕망의 구조를 다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나의 작품 속에서 내재된 욕망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나는 욕망을 오브제로 치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작품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은 모두 내밀한 상징성을 지니며, 나의 욕망을 시각적 대상으로 변환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나는 볼펜이라는 매체를 통해 선적인 요소를 반복적으로 중첩함으로써 마치 욕망을 새겨 넣듯 화면 위에 구축해 나간다. 이러한 노동집약적 과정을 거치며, 내면의 갈망은 점차 해소되는 듯한 감각을 동반하고, 완성된 오브제를 바라볼 때는 마치 그것을 실제로 소유한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나는 유년기에 뚜렷한 결핍 없이 성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증폭된 내면의 소유욕과 정서적 공허감이 작업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욕망은 단순한 물질적 소유

에 그치지 않고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 내재된 소유욕, 나아가 이성애적 성적 욕망 안에 감춰진 지배 욕망으로 확장되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인간 내면에 잠재된 욕망이 예술 창작의 과정에서 어떻게 시각화되고 구조화되는지를 고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은 외부의 자극과 소비적 맥락 속에서 표준화되어 유통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감정과 욕구의 자율성을 위협한다. 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 욕망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을 침식하는지를 반영하며, 예술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작업은 개인적 경험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안에서 구성된 감정과 욕망을 시각 언어로 재해석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정서와 가치에 대한 사유로 확장된다. 특히 욕망과 사랑, 소유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감정 구조와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예술이 어떻게 현실의 억압된 감정들을 환기하고 질문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욕망’이라는 다층적 개념을 이론적·시각적으로 종합하여 개인의 경험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감정 구조를 탐구하는 데 의의를 둔다. 더 나아가 예술이 욕망을 매개로 자아를 성찰하게 하며, 통제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억눌린 감정과 욕망을 마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 내용 연구	3
1) 사랑과 소유욕의 관계	3
2) 소유욕에 대하여	6
3) 소유욕과 이성애	9
4) 자본주의 상품들을 향한 내적 갈망	21
2. 작품 조형 연구	3
1) 불펜을 이용한 반복노동	3
2) 흑백의 화면구성	8
3) 다층적 욕망의 오브제화	22
3. 작품 분석	25
III. 결론	56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Girl's love, 캔버스에 볼펜, 24.2×33.4cm, 2023
- [작품 2] Boy's love, 캔버스에 볼펜, 24.2×33.4cm, 2023
- [작품 3] Fall in love, 캔버스에 볼펜, 45.5×53cm, 2023
- [작품 4] Castle,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소, 112.1×145.5cm, 2024
- [작품 5] Supernatural,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소, 60.9×72.7cm, 2024
- [작품 6] The boy is mine 1,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소, 112.1×145.5cm,
2024
- [작품 7] The boy is mine 2,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소, 112.1×145.5cm,
2024
- [작품 8] Do you love me?,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소, 50×72.7cm, 2024
- [작품 9] Adore,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소, 130.3×193.9 cm, 2024
- [작품 10] For x, 캔버스에 볼펜, 27×27cm, 2024
- [작품 11] Fake love, 캔버스에 볼펜, 27×27cm, 2024
- [작품 12] Fetish,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소, 65.1×90cm, 2023
- [작품 13] Fetish 2,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소, 80.3×130.3cm, 2024

도판 목차

[도판 1] 본인 작업, 유소유, 장지에 수묵담채 162.2×130.3cm, 2021

[도판 2] IL LEE, Untitled 396, ballpoint pen on paper, 76.2×57.2cm, 1996

[도판 3] IL LEE, Untitled 292, ballpoint pen on paper, 57.2×76.2cm, 1992

[도판 4] 본인 작업, 'Fetish 2' 의 이미지 컷

[도판 5] Jeff Koons, Dirty — Jeff On Top, plastic, 139.7×276.9×180.3cm, 1991

[도판 6] Jeff Koons, Jeff and Ilona, polychromed wood, 167.6×289.6×162.6 cm, 1990

[도판 7] Jeff Koons, Baccarat Crystal Set, stainless steel, 31.8×40.6×40.6cm, 1986

[도판 8] Jeff Koons, Jim Beam - J.B. Turner Train, stainless steel and bourbon, 27.9×289.6×16.5cm, 1986

I. 서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욕망을 지닌 채 살아간다. 이러한 욕망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에서 비롯되어, 점차 더 나은 삶을 향한 자기 실현의 욕구로 확장된다. 그중에서도 '소유'에 대한 갈망은 나에게 있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랑, 부, 사회적 명성과 같은 비물질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로까지 이어진다. 인간은 종종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끊임없는 욕망을 품으며, 그 열망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의 경우, 유년 시절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자라며, 물질적인 결핍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 원하는 것을 대부분 소유할 수 있었고, 사랑과 보호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처음으로 '갈망'이라는 감정을 자각하게 되었다. 충분히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으며, 가진 것과는 무관하게 내면 깊숙이 자리한 욕망이 점차 증폭되어감을 느꼈다. 내면에 축적된 갈망은 학부 졸업 전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시의 작업은 내가 소유하고자 했던 사물들을 화면 가득히 재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나는 일시적으로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듯한 감각을 경험했다. 이는 내재화된 소유 욕망의 직접적인 표출이자, 이루지 못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적 제스처로 작용했으며 향후 작업의 중요한 동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나의 소유 욕망은 점차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면서, 나는 물건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감정의 흐름까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물질적 소유를 향했던 초기 작업의 경향이 감정적 욕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나의 작업은 자연스럽게 '욕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심화되어 갔다.

본 연구는 ‘소유 욕망’을 중심으로, 그것이 나의 내면과 예술적 표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통념과 규범은 종종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제약을 가하지만, 예술은 그러한 내밀한 감정과 갈망을 탐구하고 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된다. 나는 유년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소유에 대한 감정을 단순한 물질적 차원을 넘어 존재에 대한 인정 욕구 혹은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같은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의 작업 속에서 오브제와 조형 언어로 형상화되며 예술의 맥락에서 재해석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작품의 주제적 측면을 다룬다. 사랑과 소유, 그리고 물질에 대한 갈망이라는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이론과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나의 욕망이 어떻게 예술적 동기로 전환되는지를 살펴본다. 2장에서는 조형적 분석을 통해 허상의 공간, 흑백 이미지의 구성, 그리고 오브제의 상징성을 통해 내면 욕망이 어떻게 시각화되는지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개별 작품이 지닌 의미와 조형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개인적인 욕망이 창작 과정에서 어떻게 시각화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정리하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적 통찰을 바탕으로 향후 작업의 방향성과 예술적 확장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 내용 연구

1) 사랑과 소유욕의 관계

나는 사랑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 중 하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욕망을 자극하는 양가적 성격을 지닌다고 느낀다. 사랑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으며, 때로는 강렬한 소유욕과 결합되어 집착, 갈망, 상실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나에게 있어 사랑은 마치 하나의 연극처럼 희극적 요소를 내포하면서도, 언제나 일정한 고통을 수반하는 감정으로 인식된다.

나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깊이와 농도가 서로 다른 여러 형태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겪었다. 애정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강해졌으며,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상대와 함께 있는 순간에도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상대의 마음이 나로부터 멀어지면 어쩌지’와 같은 두려움은 점차 커져만 갔다. 이러한 불안은 결국 상대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하고자 하는 소유욕으로 전이되었고, 이는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서 경험한 욕망의 또 다른 양상이 되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이러한 감정이 단순한 애정의 차원을 넘어,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마음은 결코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할 때마다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지곤 했다. 이러한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 구조는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의 성애론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는 인간의 사랑

이 본질적으로 생존과 종족 보존이라는 본능적 욕구에 기인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힌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내가 경험한 사랑 속 욕망의 이중성과 소유욕의 근원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틀을 제공한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종종 희극적인 혹은 비극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이는 연인들이 모두 종족 혼의 포로가 되어 이에 지배되고 이미 자신의 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지 개인적 차원의 애정이 아니라, 종족 보존이라는 본능적 욕구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임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연애 감정이 고조될수록 연인들의 마음이 시적이고 숭고한 정취에 사로잡히며,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향까지 띠게 된다고 보았다.¹⁾ 이 같은 관점은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욕망의 이중성과, 그것이 때로는 자율성을 상실한 강박적 소유욕으로 변질되는 내면의 갈등을 해석하는 데 유의미한 철학적 기반이 된다.

내가 사랑을 통해 경험한 감정, 특히 관계 속에서 점차 자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듯한 상태는 쇼펜하우어의 서술과 밀접하게 맞아 있다. 사랑은 때로 나를 숭고한 감정의 정점으로 이끌어 올리는 듯한 고양감을 안겨 주었지만, 동시에 상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듯한 깊은 무력감으로 나를 끌어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감정의 이중성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종족 혼의 포로가 되어 자신의 몸이라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와도 유사하며, 나의 작업에서는 이와 같은 감정적 충돌과 심리적 균열이 시각적 요소로 드러나게 된다.

나는 에드가 바우어의 사랑에 대한 견해를 통해 소유욕의 본질을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다. 그는 사랑을 “잔인한 여신”에 비유하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애정을 넘어 인간 존재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유의 욕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바우어에 따르면 사랑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 자아까지도

1)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저, 조규열 역, 『성애론』, 문예출판사, 1999, p.65.

요구하는 절대적이고도 전능한 힘으로 작용하며, 이는 때때로 자기 희생은 물론 자아의 소멸에 이르기까지 감정의 극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²⁾ 이러한 관점은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성애의 본질적 속성과도 궤를 같이하며,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경험한 감정의 소용돌이와 내면적 소유욕의 증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감정의 양가성, 즉 사랑이 지닌 숭고함과 동시에 파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같은 관점은 내가 실제로 관계 속에서 경험한 감정들과도 깊이 상통한다. 나 역시 사랑하는 동안 상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는 동시에, 점차 나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감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자각이 들었지만,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그 사랑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에 내면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처럼 사랑은 개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상대를 완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동반한다. 나는 이러한 이중적 감정의 양상을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이 제시한 ‘소유적 실존 양식(Possessive Mode of Existence)’ 개념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다. 프롬에 따르면, 소유적 실존 양식에 기반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관계라기보다는,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방향으로 쉽게 흐른다.³⁾ 이와 같은 관점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포하는 갈등과 소외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실제로 나의 경험에서도 사랑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함께 있음’이라는 현재의 관계보다 ‘상대를 잃지 않음’이라는 불안한 미래 가능성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이러한 불안은 상대를 통제하거나 확인하려는 행동으로 표출되곤 했다.

이처럼 관계의 본질이 상호 이해와 존중보다는 소유와 불안에 기반하게 될 때, 사랑은 점차 억압과 긴장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내가 작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탐구하게 된 주제이며, 내면의 불안과 소유욕 사이의 긴장을 시각적으로

2) 에리히 프롬 저, 차경아 역, 『소유냐 존재냐』, 까치글방, 1996, p.41.

3) 위의 책, p.73.

드러내는 데 중요한 개념적 토대가 되었다.

더 나아가 나는 현대 사회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문화적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인식한다. SNS, 대중매체,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랑은 지속적으로 주요 서사로 등장하며, 이와 같은 반복적 재현은 사랑을 하나의 문화적 코드이자 상품화된 감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나 또한 이러한 서사에 쉽게 감정 이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랑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편적인 경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판단된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양한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유사한 감정의 흐름 속에서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욕구는 나만의 특수한 감정이라기보다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인간 내면의 보편적 정서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회 전반에 어떻게 스며들고 소비되는지를 자각하게 되면서, 나의 개인적인 욕망 또한 단순한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사랑이 지닌 기쁨과 고통, 자유와 구속이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사랑과 소유욕 간의 긴장관계를 작업을 통해 시각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2) 소유욕에 대하여

소유욕은 나의 예술적 동기를 이끄는 핵심적인 내면의 에너지이며, 이는 물질적 대상뿐 아니라 감정과 관계에까지 확장된 욕망으로 작용한다. 나는 유년 시절부터 유독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물질적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가치나 감정에까지 확장되어 왔다. 소유에 대한 이러한 강렬한 내적 갈망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예술 창작의 동기로 구체화되었고, 특

히 학부 시절 졸업 전시에서 발표한 《유소유》(2021)는 욕망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된 작업이었다.



[도판 1] 본인 작업, 유소유, 장지에 수묵담채, 162.2×130.3cm, 2021

나는 인간의 소유욕이 물질적 차원을 넘어 사랑과 감정의 영역까지 깊이 스며들
어 있다고 인식한다. 인간은 일용품이나 재산뿐 아니라 지식, 사상, 감정, 그리고
타인의 사랑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한다. 특히 ‘사랑’의 영역에서 소유
욕은 보다 강하게 작용하며,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고자 하는 욕망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고 느낀다. 이는 소유욕이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 감정과 관계의 차원에서도 깊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나의 인식은 에드가 바우어(Edgar Bauer, 1820-1886)의 견해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본래의 상호적이고 자유로운 교감에서 벗어나 일방적인 점유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그 갈망이 소유의 욕망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고 보았다.⁴⁾ 이와 같은 철학적 시각은 나의 작업 속에 담긴 관계 중심적 욕망의 표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유의 기반이 된다. 이처럼 나에게 있어 소유욕은 예술로 표출되는 심리적·정서적 기제이며,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창작의 근본적 동력이다. 소유욕은 사물이나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의미한다.⁵⁾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사회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넘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경향을 지니며, 이러한 성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의 『소유냐 존재냐』에 잘 드러난다. 그는 현대 사회가 점차 "더 많은 소유"를 지상 목표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소유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내면의 공허함을 심화시킨다고 분석한다.⁶⁾ 그의 분석은 나의 작업 속에 내재된 소유 욕망과 그것이 예술로 표출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이론적 기반이 된다.

《유소유》는 내가 갖고자 했던 사물들과 욕망의 대상을 화면 가득히 배치함으로써, 내면에 억눌려 있던 결핍과 갈망을 시각화한 작업이다. 수묵담채 기법이 사용된 이 작업은 전통적 매체를 통해 현대적 욕망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감정과 사유가 교차하는 지점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지고 싶은

4) 에리히 프롬 저, 차경아 역, 『소유냐 존재냐』, 까치글방, 1996, p.33.

5) 네이버 국어사전, '소유욕'

<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C%86%8C%EC%9C%A0%EC%9A%95>

6) 위의 책, p.41.

것들'이라는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나의 욕망이 어떻게 예술로 치환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자전적 시선을 바탕으로 한 자화상으로, 과도한 소유욕에 사로잡힌 나의 내면을 시각화한 결과물이다. 화면 속 인물은 병적으로 쌓여 있는 수많은 신발을 배경으로, 여전히 온라인 쇼핑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는 현대 소비 문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잉 소비의 일상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나 자신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다. 특히 눈 밑이 붉게 물든 인물의 표정은 중독 상태를 상징하는 장치로, 소유욕이 통제 불가능한 집착으로 치달는 심리적 과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설정은 단순한 자아 묘사를 넘어서, 강박적 소유욕이라는 무의식의 층위가 무대화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내가 직면한 감정적 중독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응시하는 시도로, 소비라는 행위가 감정적 결핍을 보상하려는 본능적 반응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나에게 소유욕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심리적 에너지이며, 나의 예술 실천은 이러한 욕망의 구조를 탐구하고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소유욕과 이성애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지만, 나에게 가장 깊은 감정적·육체적 자극을 유발한 경험은 이성 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한 시기에 누군가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고, 이는 내 삶에서 처음으로 겪는 깊고 강렬한 열정이었다. 그 감정은 상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나는 그 순간 마치 상대를 온전히 소유한 듯한 강한 성취감과 충만함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성애론과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 쇼펜

하우어는 사랑의 본질이 단순히 감정적 교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대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육체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중요한 것은 사랑에 응하는 것 따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 즉 육체관계라는 점이다. 전자가 확실하다고 해도 후자가 없으면 결코 위안이 되지 못하며 이때문에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서술하였다.⁷⁾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본질적으로 일종의 환상이라 보며, 충족 번식을 위한 자연의 전략으로 해석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연인 간의 사랑은 한 사람과 완전히 융합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되며, 이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띤다. 두 연인은 상대가 오직 자신만을 성적으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따라서 배타적 욕망은 결국 독점적 소유의 형태로 드러난다. 남성과 여성은 생리학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성과의 합일을 통해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며, 이러한 강렬한 일체화에 대한 욕망은 고대신화나 종교적 서사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었지만 두 몸으로 나뉘었고 그때부터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다시 결합하려 한다”는 고대 신화나,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가 창조되었다는 성서의 이야기는 이러한 강렬한 합일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⁸⁾ 이처럼 연인 간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 이상으로 존재적 결합의 의미를 지니며, 두 사람이 서로를 전폭적으로 위임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랑이 쉽게 강한 독점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에리히 프롬은 설명한다.⁹⁾

앞서 명시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육체적 결합을 사랑의 완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인간 내면에 자리한 본능적 소유 욕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나 역시 내가 원하던 이성과의 관계가 좌절되었을 때,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으며, 이는 내 안의 소유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깊은 정신적 공허감으로 이어졌다.

7)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저, 조규열 역, 『성애론』, 문예출판사, 1999, p.22.

8) 박찬국 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읽기』, 세창미디어, 2023, p.88.

9) 위의 책, p.99.

이성애(異性愛)는 사전적으로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¹⁰⁾ 나는 현실의 이성애가 인간의 본능적 소유 욕망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 소유욕이 강해질수록 사랑은 본래 지닌 상호 존중과 자유의 의미에서 벗어나, 통제와 지배의 감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성애의 본질에 대해 “성애라고 하는 이 수상한 놈은, 대체로 모든 것을 전복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며, 파멸로 이끄는, 악의에 찬 마귀처럼 보여진다”고 이야기하였다.¹¹⁾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서술은 성애를 인간 본능 중 가장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힘으로 제시하며, 그것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캉(Jacques Lacan, 1901-1981) 역시 사랑을 결핍을 재생산하는 구조라 보며, “사랑은 언제나 손에 넣을 수 없는 추상적이며 원초적인 힘이자 끝없는 요구”라고 말한다. 그는 성적 욕구(need)는 충족이 가능하지만, 사랑이라는 본질적 요구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연인들에게 끝없는 갈등과 불안을 야기한다고 본다.¹²⁾

나는 이성과의 사랑에서 얼마나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선택을 하는지를 몸소 실감해왔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생물학적으로 종족 번식을 전제로 성애를 갖기에, 사랑은 종종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충동과 본능에 의해 결정된다. 이로 인해 소유 욕망은 더욱 증폭되며, 사랑은 지배와 통제의 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에리히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사랑이 상대를 구속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잃게 만들고, 결국 마비시키고 질식시켜 죽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¹³⁾ 나는 앞서 명시한 소유욕과 이성적 성애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작품에 반영하고자 하며, 인간 내면에 잠재된 본능적 갈망과 그로 인한 감정의 충돌을 시각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0) 네이버 국어사전, ‘이성애(異性愛)’
https://dict.naver.com/dict.search?dicQuery=%EC%9D%B4%EC%84%B1%EC%95%A0&query=%EC%9D%B4%EC%84%B1%EC%95%A0&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11)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저, 위의 책, 문예출판사, 1999, p.19.

12) 자크 라캉 저, 권택영 역, 『욕망이론』, 文藝出版社, 1994, p.21.

13) 에리히 프롬 저, 차경아 역, 『소유냐 존재냐』, 까치글방, 1996, p.73.

4) 자본주의 상품들을 향한 내적 갈망

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결핍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비로 전이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어떤 물건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단순한 소유욕을 넘어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내면의 갈망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신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물질은 즉각적이고 분명한 만족을 제공하며 잠시나마 감정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애정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소비를 통해 마음의 균열을 메우려 했고, 어떤 물건은 실제로 위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이별 후 명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찾게 된 적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허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기보다, 감정을 달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적 공백은 자연스레 소비와 외적인 꾸밈으로 이어졌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내면의 허기를 일시적으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증폭되며, 때로는 감정의 빈틈을 채우는 하나의 대안처럼 기능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보이기 위해, 다시 말해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¹⁴⁾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c.1260-c.1328)가 말한 '원함'의 개념은 불교에서도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석가모니는 이 '원함'을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으로 보았다.¹⁵⁾ 에리히 프롬 역시 『소유냐 삶이냐』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 개인의 소비 욕구는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결핍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쾌락 원리를 넘어서>에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죽음뿐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욕망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다.¹⁶⁾ 상품을 향한 나의 갈망 역시 삶의 동력일 수 있으나,

14) 박찬국 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읽기』, 세창출판사, 2023, p.20.

15) 에리히 프롬 저, 정성환 역, 『소유냐 삶이냐』, 흥신문화사, 2007, p.85.

16) 자크 라캉 저, 권택영 역, 『욕망 이론』, 文藝出版社, p.11.

이는 늘 끝없는 불만족을 동반한다. 특정 상품을 소유하는 순간 그 가치는 금세 퇴색하고, 또 다른 상품에 대한 욕망이 다시 촉발된다. 결국 소비는 완전한 만족이 아닌, 끝없는 결핍과 소비의 순환만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끊임없이 갈망했던 것은 특정한 상품 자체가 아니라,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물질에 대한 욕망이었다. 나는 자본주의적 소비 구조 속에서 내면의 결핍이 어떻게 욕망으로 전이되고 작동하는지 작품을 통해 표출하고자 한다.

2. 작품 조형 연구

1) 볼펜을 이용한 반복노동

내가 조형언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볼펜(ballpoint pen)을 주요 매체로 선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나의 성장 배경과 학문적 경험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학부 시절 동양화를 전공하며 ‘선(線)’의 개념을 깊이 탐구했던 경험은 이후 나의 조형 언어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회화에서 선적 표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하지만, 선을 조형 언어의 중심으로 삼아 발전시킨 전통은 동양 회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⁷⁾ 동양화에서의 선은 단순한 형식적 요소를 넘어,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고 작가의 정신과 철학적 사유를 담아내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한다.

당말 오대의 대표적인 산수화가 형호(荆浩)는 그의 저서 필법기(筆法記)¹⁸⁾에서 “그림이란 긋는 것이다(畫者劃也)”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화(畫)’는 ‘획(劃)’

17) 박아름, 「겹선으로 치환(置換)되어 표현된 이미지 연구」, 석사논문, 성균관대학교, 2016, p.5.

18) 오대(五代) 후량(後梁)의 걸출한 산수화가 형호(荆浩)가 자신의 창작이론을 총괄해 지은 중국 산수화론 1권.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곧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획을 긋는 행위, 즉 선을 통해 형상을 구성하는 행위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¹⁹⁾ 이처럼 동양화는 선과 여백을 조형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으며, 나 또한 이러한 동양적 미감에 매료되어 선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다.

이러한 조형적 환경 속에서 나는 점차 필력을 중시하는 표현 방식에 몰두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볼펜이라는 도구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학부 졸업 이후에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업을 지속하고자 했으며, 이때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은 나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매체로 다가왔다. 볼펜은 단지 필기를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내게 일상과 예술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볼펜은 익숙하면서도 손의 감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였으며, 무엇보다 내 작업의 중심 주제인 ‘욕망’과 깊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흥미를 느끼게 했다. 욕망은 일정한 시간에만 작동하는 감정이 아니라, 예고 없이 불쑥 떠올랐다가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휘발적이고 순간적인 성질을 지닌다. 나는 그러한 찰나의 감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욕망이 피어오를 때마다 볼펜을 들고 선을 그려 나갔다. 그 과정을 거치며 나는 점차 섬세하고 정밀한 표현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지금의 작업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볼펜은 나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일상 속에서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흔히 볼펜은 단순한 필기구로 여겨지지만, 그 안에는 회화적 도구로서의 독특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다. 볼펜은 펜 끝에 부착된 작은 불이 종이 표면과의 마찰을 통해 회전하면서, 카트리지에서 잉크를 끌어올려 종이에 전사(轉寫)²⁰⁾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구조는 볼과 이를 감싸는 팁, 잉크, 저장부인 카트리지, 그리고 몸체인 축으로 구성된다.

19) 김백균, 「선적 사유」, 현대미술학논문집, (13), 187-208, 2009, p.193.

20) 전사(轉寫): 글이나 그림을 옮겨 베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50755&cid=42627&categoryId=42627>

볼펜은 이러한 작동 원리 덕분에 종이의 재질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매끄럽고 일관된 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²¹⁾ 특히 약간 거친 종이에서도 저항감 없이 부드럽게 드로잉이 가능하다는 점은 내가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때 유리하게 작용했다. 나는 잉크의 점도를 활용하여 해칭(hatching)²²⁾ 기법을 통해 선의 길이와 밀도를 조절하며 화면의 명암을 구성해 나갔다. 연속적으로 선을 긋는 행위는 오브제의 형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이 같은 노동집약적인 방식은 나의 작업 전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되었다. 볼펜은 반복적으로 선을 중첩시키는 과정에 특히 적합한 매체였다. 내가 사용하는 유성 볼펜은 특히 이 반복적 드로잉에 적합한 질감을 제공한다. 유성 볼펜 특유의 점성 있는 잉크는 종이 위에서 마찰감을 유발하면서도 매끄럽고 유연한 선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내 손의 움직임과 감정을 정직하게 반영할 수 있게 만든다. 물론 보존성과 발색 면에서 볼펜은 일반적으로 아카이벌 퀄리티(archival quality)의 미술용 펜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안료 기반의 펜은 색이 바래지 않으며, 산성 없는 종이 위에 사용될 경우 장기 보존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은 표현을 위한 즉각적인 반응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거나, 선을 ‘그리는’ 행위보다는 ‘표면을 덮는’ 방식에 가깝게 느껴졌다. 나는 선의 흐름 자체가 감정의 흐름이며, 욕망의 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료 또한 그 감정의 즉각성과 물리적 흔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했다. 유성 볼펜의 잉크는 종이 위에서 농담의 깊이와 압력에 따른 미묘한 감각 차이를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선을 중첩시킬 수 있는 속도감과 효율성도 확보된다. 이 모든 조건은 내 작업에서 반복과 밀도를 기반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1)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볼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3332&cid=40942&categoryId=31888>

22) 해칭(hatching): 관화·소묘에서 다양한 평행선이나 교차선 등을 그려넣어 대상의 음영, 양감, 명암 등을 나타내는 기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5388&cid=43667&categoryId=43667>

다시 말해, 나는 단순히 볼펜을 ‘쓰기 편한 도구’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물성적 저항감과 감각적 유연성, 그리고 반복 속에서 감정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실재적 도구로서 유성 볼펜을 선택한 것이다. 그 안에는 내 작업의 철학과 조형 언어가 내재되어 있다. 치밀하게 쌓인 선들은 화면에 높은 밀도를 형성했고, 그 반복 행위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내면의 감정이 스며든 흔적, 일종의 정서적 노동으로 자리 잡았다. 수없이 반복된 선들은 단순한 조형 요소를 넘어서,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결핍과 욕망을 다층적으로 드러내는 매개체로 기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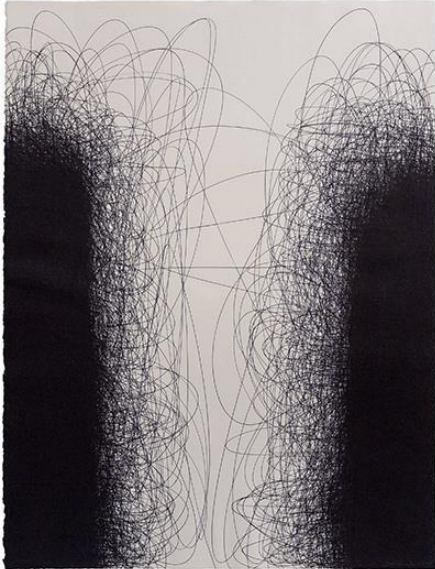
반복(repetition)은 어떤 형태나 공간의 유사한 요소를 두 번 이상 사용하는 조형 원리를 말한다. 이는 화면 상의 대상을 일정한 방식으로 나열하면서, 형태와 공간, 행위의 반복을 통해 시각적 흐름과 통일감을 형성한다. 이때 반복되는 행위는 단지 형상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시간성과 움직임의 효과까지 포함한다. 반복은 가장 오래된 조형의 구상방법 중 하나로, 단순하면서도 일련의 연속성과 통일된 힘을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²³⁾

질 들뢰즈(Deleuze Gilles, 1925-1995)는 “반복은 ‘동일성’을 자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차이’를 형성시키고, 비슷한 것을 또 하나의 다른 존재로 있게 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이처럼 반복은 단순한 동일성의 실현이 아니며,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²⁴⁾ 이러한 들뢰즈의 관점은 나의 작업 방식에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나는 반복적인 선 굵기를 통해 화면을 구축하며, 그 안에서 동일한 행위를 지속하면서도 매번 미묘하게 달라지는 형상과 감정을 생성해낸다. 반복을 조형 언어의 핵심으로 삼아 작업해 온 국내외 작가들 중, 나는 특히 이일의 작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의 작업은 반복적 행위를 통해 감정의 밀도와 정서를 응축하는 방식에서 나의 작업과 유사한 맥락

23) 박아름, 「겹선으로 치환되어 표현된 이미지 연구」, 석사논문, 성균관대학교, 2016, p.8.

24) 정하임, 「선과 반복구성을 활용한 장신구 조형성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12,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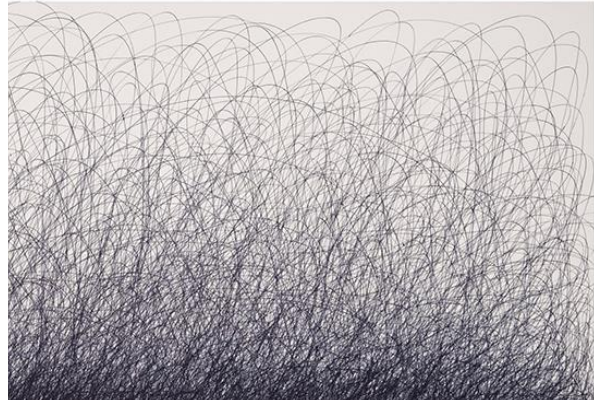
을 형성한다.



[도판 2]

[도판 2] IL LEE, Untitled 396, ballpoint pen on paper, 76.2×57.2cm,

[도판 3] IL LEE, Untitled 292, ballpoint pen on paper, 57.2×76.2cm,
1992



[도판 3]

나는 이일의 작업에서 볼펜이라는 일상적이고 제한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단순한 조형적 수단을 넘어, 작가의 내면 깊숙한 정서—강박적 사고, 누적된 감정, 정서적 고통—의 표출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반복 행위는 마치 감정을 견디고 응축하는 수행처럼 다가왔으며, 이는 나의 작업에서 욕망과 결핍을 표현하는 방식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특히 그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급속히 확장되던 뉴욕에서 작업하며,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마주했다. 이와 같은 시대적·심리적 배경은 그의 작업에 응축된 감정과 긴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을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드러내려는 그의 태도, 통제된 도구를 사용해 자기 존재를 흔적화하려는 방식은 나의 작업과도 공통된 지

점을 형성한다. 그의 의도와 반복 행위는 작품 속에 축적된 흔적으로 남으며, 제작 과정과 시간성을 명확히 드러낸다.²⁵⁾ 계속해서 반복된 선 긋기 행위는 감정과 욕망이 켜켜이 쌓인 흔적을 화면에 각인하는 과정이다. 얇고 가벼운 선들이 층층이 중첩되며 하나의 형상을 이루는 방식은, 욕망과 결핍이 순간적 감정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갈망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나에게 이와 같은 반복적인 행위는 단순한 조형 수단을 넘어,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을 응축하는 하나의 수행적 태도이자 동시에 감정의 흔적을 기록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2) 흑백의 화면구성

나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유욕의 변화는 조형적 탐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유년 시절에는 물질적인 결핍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경제적·정서적 환경에 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소유에 대한 갈망도 점차 구체화되고 강렬해졌다. 내 회화 작업에서 색채는 대부분 배제된다. 흑백이라는 제한된 색채 범위는 오히려 형태와 구조라는 조형적 요소에 집중하게 만들었으며, 강한 명암 대비를 통해 욕망이라는 감정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이는 감정의 극단과 내면의 갈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자, 욕망이 지닌 긴장감과 밀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다.

검정은 화면 전체를 지배하며 강한 시각적 무게감을 부여할 뿐 아니라, 물체의 경계를 명확히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²⁶⁾ 이는 영화감독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 (Sergei Eisenstein, 1898-1948)’이 색채를 배제함으로써 형식과 내용의 집중도를 극대화하고자 했던 전략과 유사하다.²⁷⁾ 아이젠슈타인은 색의 부재를 통해 관객의

25) 박아름, 앞의 논문, p.4.

26) 에바 헬러(Eva Heller) 저, 이영희 역, 「색의 유혹 1 - 재미있는 열세 가지 색깔 이야기」, 예담, 2002, p.213.

27) 위의 책, p.215.

시선을 오직 구성과 내러티브에 집중하게 만들었으며, 나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흑백을 조형 언어의 중심에 두었다. 전체적인 작업에서는 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지만, 일부 예외적인 작품에서는 특정 오브제에 한해 색을 제한적으로 활용했다. 이는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니라, 해당 오브제가 지닌 개념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였다. 화면 안에 드문드문 배치된 색은 욕망의 대상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며, 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감정의 형상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방식은 작품의 주제 의식—결핍, 소유욕, 갈망—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아울러, 질감의 선택 역시 나의 조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되었다. 나는 특히 반짝이는 유광보다 빛 반사가 적은 무광 재질이 주는 감각을 선호한다. 무광의 표면은 시선을 산만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작품의 형태나 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특성은 선을 중심으로 한 작업이나 세밀한 묘사에 특히 효과적이었다. 무광의 질감은 반사광이 없는 만큼 절제된 고요함과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미감을 표현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이 같은 이유로 나는 화면을 구성할 때 제소(Gesso)를 주로 활용하여 매트한 표면 질감을 구현했다. 제소는 표면의 빛 반사를 억제함으로써 작업의 세부 표현뿐만 아니라 감정의 밀도까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내 조형 언어의 일관성과 깊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탕색으로는 회색을 선택했다. 이는 선적인 요소가 중심이 되는 볼펜 드로잉에서, 볼펜이 지닌 한정된 밀도를 보완하고 이미지의 선명도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조형적 선택이었다. 회색은 스스로 명확한 색채로 규정하지 않으며, 주변 색에 따라 밝기와 분위기가 유동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나는 이러한 특성이 곧 욕망의 유동성과 불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았다.²⁸⁾

욕망은 언제나 명확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감정 상태에 따라 끊임

28) 에바 헬러(Eva Heller) 저, 앞의 책, 예담, 2002, p.453.

임없이 변화하고 흔들리는 감정이다. 회색은 이러한 정서적 유동성을 시각적으로 환기시키기에 적절한 색이었다. 따라서 회색은 단순한 배경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내 작업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불확실성과 모호함,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긴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조형적 요소가 되었다.

3) 다층적 욕망의 오브제화



[도판 4] 본인작업, 'Fetish2'의 이미지 컷

사회적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노출되는 화려한 이미지들은 내면에 잠재된 욕망을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이와 같은 감정의 흐름을 작업 안에서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했고, 현실과 분리된 허상의 공간을 창조한 뒤, 그 안에 욕망을 상징하는 오브제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들리에는 부(富)에 대한 열망을, 하트 풍선은 사랑에 대한 갈망을 상징한다. 이 오브제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내면 깊숙한 결핍과 욕망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기호로 기능한다. 나는 이러한 상징들을 나만의 책가도(冊架圖) 형식 안에 배열함

으로써, 욕망이라는 감정의 조각들을 마치 박제하듯 화면 속에 고정시키고자 했다. 책가도의 구조를 빌려 체계적으로 정렬된 이 오브제들은 나의 욕망이 얼마나 질서 있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혹은 얼마나 통제되지 않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되었다.

책가도는 조선시대에 책을 비롯해 도자기·문방구·향로·청동기 등을 책장 안에 정갈하게 배치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²⁹⁾ 나는 이 전통적인 형식을 차용해, ‘욕망’이라는 비물질적 감정을 마치 소유 가능한 물건처럼 시각화해 보았다.

즉, 조선시대의 책가도가 지식과 교양, 물질적 풍요를 상징했다면, 나의 작업 속 책가도는 현대인의 욕망을 박제하듯 정리된 구조 안에 배치함으로써, 욕망이 어떻게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편입되고 소비되는지를 드러낸다.



[도판 5]



[도판 6]

[도판 5] Jeff Koons, Dirty — Jeff On Top, plastic, 139.7×276.9×180.3cm, 1991

[도판 6] Jeff Koons, Jeff and Ilona, polychromed wood, 167.6×289.6×162.6cm,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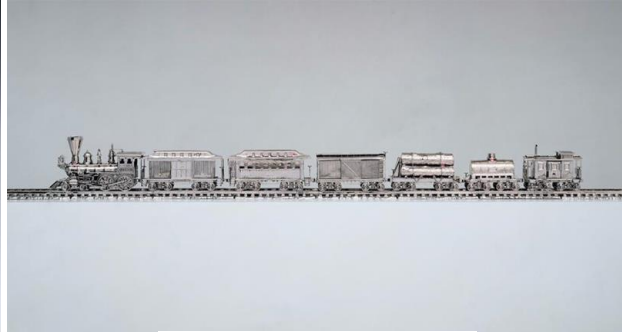
29)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책가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2921&cid=46660&categoryId=46660>

이러한 방식은 제프 쿤스(Jeff Koons)의 작업과도 일정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다. 특히 그의 「Made in Heaven」 시리즈는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작업으로, 나의 관심을 강하게 끌었다. 이 시리즈에서 쿤스는 당시 부인이었던 이탈리아의 포르노 배우이자 정치인이었던 치치올리나(Ilona Staller)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작품화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작업이 단순히 외설적인 시선으로 소비되기보다는, 욕망에 대한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성찰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 나 역시 욕망을 주제로 작업할 때, 그것이 육체적 욕구나 선정성에만 머물러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 오히려 나는 그 이면에 자리한 정서적 결핍과 내면의 갈망을 시각화하는 데 더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쿤스의 작업에서 욕망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사랑, 관계, 인간성에 대한 탐구로 확장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Jeff on Top」, 「Wolfman」, 「비단 능구렁이 위의 정사장면」, 「Jeff and Ilona」 등 「Made in Heaven」 시리즈에 포함된 작품들에서, 제프 쿤스는 성적 욕망을 단순히 은폐된 포르노그래피의 영역에 가두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도덕적 판단을 넘어선 천국의 아담과 이브의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성행위를 순수한 인간 본연의 욕망으로 환원하고자 했다.³⁰⁾ 쿤스의 이 같은 시도는 성적 행위에서 흔히 연상되는 선정성과 음성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죄의식과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의 본질적인 욕망을 부각한다. 그는 이를 통해 성행위가 단지 육체적 접촉 이상의, 근원적 감정이자 인간 존재의 일부임을 주장하고자 했다. 쿤스의 작품들은 욕망을 단순한 정서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형상으로 구체화한 인상적인 사례로 다가왔다. 그는 사랑에 내재한 욕망을 직설적이고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이러한 표현 방식은 나의 작업 주제 의식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특히, 쿤스가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관계를 예술로 승화시킨 방식은, 나에게도 내면의 욕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나가는데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

30) 윤지애, 「JEFF KOONS의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 : "The New~Made in Heaven"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朝鮮大學校 大學院, 2002, p.27.



[도판 7]



[도판 8]

[도판 7] Jeff Koons, Baccarat Crystal Set, stainless steel, 31.8×40.6×40.6cm, 1986

[도판 8] Jeff Koons, Jim Beam - J.B. Turner Train, stainless steel and bourbon, 27.9×289.6×16.5cm, 1986

쿤스의 「Bacardi」, 「Henessey」 등의 술 광고 작업은 상류층으로의 지위 상승에 대한 욕망을 시각화한 것으로, 사치스러운 제품을 상류 계층과 동일시함으로써, 상승志向적인 중산층이 지닌 천박함과 가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시장 한켠에 놓인 평범한 물통과 다른 쪽의 베커라 음주용 장신구 세트는 각각 상반된 소비 문화를 상징하며, 특히 그 번쩍이는 표면은 허세로 가득한 중산층의 욕망을 은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광택 처리된 표면에서 나타나는 고의적인 반사성은 걸모습이 화려한 사물에 대한 욕망을 시각적으로 암시하며, 관람자의 시선을 매혹시키는 동시에 그 욕망의 본질을 질문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Jim Beam-J B.Turner Train」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장난감 열차 작품으로, 각각의 객차에는 Jim Beam 위스키가 실제로 담겨 있으며, 정부 세금 인지까지 부착된 채 봉인되어 있다. 이 작품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무자비한 약탈로 획득한 재산을 운송하는 수단을 연상시키며, 번쩍이는 광택을 통해 일

시적인 부에 대한 허망한 욕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술이라는 쾌락의 요소와 그것을 담고 있는 사치스러운 용기는, 인간이 소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결국 인간은 인공적인 외관과 기술적으로 연출된 화려함에 매혹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드러낸다.³¹⁾

쿤스의 작품 표면은 유광의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관람자는 작품을 바라보고 그 반사된 표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이 반사는 시각적 효과 이상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나는 이 지점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 이는 관람이 단순히 오브제를 감상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오브제를 매개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드는 경험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표면적으로는 타인을 향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욕망의 실현이라는 측면이 내재해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나의 작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나 또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특정 오브제로 치환해 표현하고, 그것을 화면 위에 ‘소유’된 상태로 재현함으로써 감정과 소유의 경계를 탐구하고자 했다. 결국, 나의 작업은 반복적인 선 긋기를 통해 욕망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조형적 시도이며, 이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이중성과 그 내면에 깃든 소유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예술적 탐구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볼펜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선을 중첩하고 누적시킴으로써 허상의 공간을 구축한다. 강한 명암 대비와 구조적인 배치를 통해 결핍과 소유 사이의 상반된 관계를 탐색하며, 단순한 오브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내면을 투영하는 시각적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 이는 내면의 갈등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감정을 환기시키며, 욕망을 물리적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내 작업에서 욕망의 시각화는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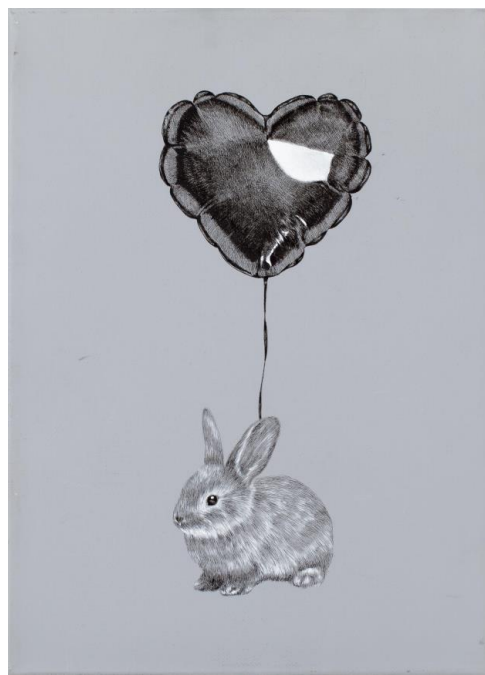
31) 위의 논문, p.23.

제, 즉 각 개인이 직면하는 소유와 결핍의 딜레마로 확장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나는 개인적 감정의 층위를 시각적 언어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감정과 욕망의 실체를 드러내는 조형적 실험을 지속하고자 한다.

3. 작품 분석



[작품 1]



[작품 2]

[작품 1] Girl's love, 캔버스에 볼펜, 24.2×33.4cm, 2023

[작품 2] Boy's love, 캔버스에 볼펜, 24.2×33.4cm, 2023

[작품 1]은 여성의 사랑에 대한 나의 주관적 해석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사람들은 흔히 “남성의 사랑은 100에서 0, 여성의 사랑은 0에서 100”이라는 표현

으로 사랑의 감정 곡선을 설명하곤 한다. 이 문장을 접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사랑과 성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면, 남성은 상대 여성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처음 느꼈던 신비감이나 갈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감정의 소멸은 성욕의 감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이 현상 속에서 성적 욕망과 감정적 애착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상대를 알아갈수록 궁금증은 해소되고, 그에 비례해 욕망 역시 점차 줄어들는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서 알랭 드 보통은 “나는 클로이를 사랑할진 모르지만 그녀를 알기 때문에 그녀를 갈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이해의 깊이가 오히려 갈망의 농도를 열게 만든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³²⁾ 사랑이라는 감정은 일시적인 열망에 기반하며, 그 열망은 종종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알랭 드 보통은 “사랑의 비극은 시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현재의 애인과 함께 있을 때, 과거의 사람을 대하는 무관심에는 특별히 잔인한 면이 있다”고 말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이 어떻게 퇴색하고 애정이 무관심으로 대체되는지를 날카롭게 짚어낸다. 이처럼 사랑은 그 지속성에 있어서 시간의 한계에 취약하다. 그 열망은 환상과 미지에 대한 투사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나의 작업은 이 ‘사라지는 욕망’에 주목하고 있다.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달 후에는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 길을 건넌다니,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³³⁾ 이 문장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점차 상대를 알아가고, 그에 따라 감정은 무뎌지며, 한때의 간절함은 무관심으로 바래버린다. 나는 이 지점에서 사랑이 지닌 가장 잔인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처음의 열망은 환상에 의해 강화되지만, 시간이 지나며 환상은 현실에 의해 벗겨지고, 감정은 일상의 마찰 속에 마모

32) 알랭 드 보통 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청미래, 2002, p.182.

33) 위의 책, p.193.

된다. 그렇게 사랑은 그 뜨거움만큼이나 서늘하게 식어간다.

이 작품에는 ‘바비(Barbie)’와 ‘토끼’가 등장한다. 바비는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이자 동시에 내가 선망해온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러한 모티프의 도입은 여성성을 획일화하려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비판이면서도 그 틀에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나 자신의 모순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이와 같은 심리적 이중성이 비단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공유하는 감정이라고 믿는다. 그 공감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나는 바비의 눈을 가리는 방식을 택했다. 눈은 감정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이를 가리는 행위는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사이의 긴장, 그리고 사회가 강요하는 시선으로부터의 해방 혹은 복종을 함께 상징한다.

눈은 개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신체 요소다. 나는 바비의 눈을 가림으로써 그녀에게 익명성을 부여하고 누구나 바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출은 바비를 특정 인물로 제한하지 않고 여성성을 둘러싼 보편적 상징으로 확장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작품 속 바비는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 여성성의 표상이자, 개인적 욕망이 투사되는 대상이다. 나는 이 바비라는 오브제를 통해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충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작품 속 토끼는 남성을 상징한다. 토끼는 일반적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인식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빠른 번식과 조루(早漏)라는 특성으로도 알려져 있다. 나는 이같은 이중적인 특성을 통해 남성을 희화화하고자 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애정과 보호 본능을 느끼는 나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토끼는 단순한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모순된 감정이 투영된 존재로서,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양가감정—사랑, 실망, 연민, 우월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바비의 목에 걸려 있는 풍선은 여성의 사랑을 상징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외적 가치에, 여성은 상대의 내면에 더 큰 비중을 둔다고 여겨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남성의 사랑이 급작스럽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지만 순간적이지만 반면에 여성의 사랑은 모닥불 속 장작처럼 천천히 그러나 깊게 타오른다고 느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품 1]에서는 바비의 목에 여러 개의 풍선을 달았다. 이 풍선들은 여성의 감정이 하나가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감정의 여지를 의미한다. 반대로 연작인 [작품 2]에서는 토끼의 목에 단 하나의 풍선을 달았다. 이 하나의 풍선은 남성의 사랑이 단숨에 타오르지만 터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속성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나는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 지닌 본질적 특성과 차이를 재해석하고, 그 감정의 지속성과 소진 방식에 대한 나의 인식을 시각 언어로 풀어내고자 했다.

풍선은 형태와 색상이 다양하며 화려하고 빛나는 외형으로 시선을 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쉽게 터질 수 있는 연약한 재질이 내포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풍선의 특성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설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예민한 사랑의 속성과 유사하다고 느꼈다. 사랑은 감정의 고조와 충돌, 그리고 예기치 못한 소멸을 동반한다. 풍선은 앞서 말한 감정의 불안정성과 일시성을 시각적으로 은유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따라서 나는 풍선을 사랑의 감정을 반영하는 상징적 오브제로 작품에 활용하였다.



[작품 3] Fall in love, 캔버스에 볼펜, 45.5×53cm, 2023

[작품 3]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형상화한 작업이다. 화면 중앙에는 ‘성(城)’을 중심축으로 배치하였고, 좌우에는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상반된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구성하였다. 좌측 화면은 사랑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감정, 그 중에서도 ‘분노’를 중심 주제로 삼았다. 나는 사랑할 때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나의 성향을 자각해왔다. 이러한 정서의 격렬함을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폭발’이라는 이미지에 주목했고 그 상징으로 화산을 선택하였다. 사랑이 초래할 수 있는 감정의 분출과 긴장,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강렬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화산의 형상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반면 우측 화면에서는 사랑의 낭만적이고 운명적인 순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큐피드 형상의 천사들이 하늘을 유영하며, 몽글몽글한 하트 모양의 구름을 향해 화살을 쏘는 장면을 통해, 사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사랑이 지닌 신비롭고 초월적인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동화적이고 환상적으로 연출하였다. 이처럼 [작품 3]은 사랑이 유발하는 감정의 양극단—격렬한 분노와 환상적인 설렘—을 동시에 화면에 담아내며, 사랑이라는 감정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본질을 회화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이다.

작품의 중앙에 배치된 ‘성’(城, Castle)은 다의적인 상징으로서 작품 전체의 개념적 축으로 기능한다. 첫째, ‘성’(Sex)은 생물학적 성별뿐만 아니라 성적 에너지와 성애적 긴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성 간의 욕망과 감정을 탐구하는 본 작업의 주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둘째, ‘성’(Castle)은 웅장하고 환상적인 건축물로, 이상화된 사랑과 낭만적 관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한다. 나는 이처럼 동일한 발음을 지닌 ‘성’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시각적·개념적 모티프로 삼아, 사랑이 지닌 이중성과 복합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작품 속 ‘성’의 외형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디즈니랜드의 성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어린 시절 ‘성’의 이미지를 동경해 왔던 나는, 실제로 마주한 디즈니랜드의 성이 애니메이션 속 이미지와 완벽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감과 환상이 뒤섞인 듯한 감각과 함께 웅장하고 비현실적인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이 경험은 내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나는 그때의 감정을 작품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성’이라는 조형 요소에 개인적인 서사와 동시에 보편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작품 4] Castle,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소, 112.1×145.5cm, 2024

[작품 4]는 새로운 기법을 실험적으로 도입한 첫 시도로, 이전 작품들과는 다른 조형 요소와 화면 구성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했다. [작품 3]에서 등장했던 ‘성’(Castle)의 이미지를 화면 중앙에 크게 배치함으로써, 사랑이라는 개념이 지닌 상징성과 무게감을 시각적으로 더욱 강조하였다. 배경은 검은색 제소를 사용해 매트하게 처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화면에 깊이감을 부여하고 중심 이미지와의 시각적 대비를 극대화하였다. 제소는 내가 주

로 사용하는 볼펜과는 성질이 상반되는 재료로 이러한 이질적인 재료 간의 조합은 물성과 감정 사이의 긴장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의도적인 결정이었다.

볼펜은 사무용 필기구로, 잉크의 흐름이 일정하고 정밀한 선 표현에 적합하다. 그러나 표현 가능한 기법과 질감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소는 캔버스의 바탕을 코팅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이며 물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다. 붓에 묻히는 양이나 터치 방식에 따라 다양한 두께와 질감을 연출할 수 있으며, 흘러내림 효과나 농담의 변화 등 볼펜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표현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제소의 특성은 내가 추구하는 밀도와 감정의 물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제소와 볼펜의 대비는 화면에 시각적 긴장과 깊이를 부여하는 데 기여한다. 이번 작품에서는 배경을 제소로 처리함으로써 ‘성’을 마치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환영(幻影)처럼 부각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사랑이 지닌 초월적이면서도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속성을 상징한다. 성의 일부는 볼펜을 활용해 정밀하게 묘사함으로써 견고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강조하고, 하단부는 제소의 흘러내림 기법을 용하여 유동적인 형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사랑이 순간적으로는 완전하고 실체적인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막상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쉽게 흩어져 버리는 속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화면의 왼쪽 상단에는 달을 배치하여 공간에 깊이를 더하고, 감정적 서사를 부여했다. 달은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들에게 서로를 떠올리게 만드는 상징적인 매개체로,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있다는 착각 속에서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일으킨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커져가는 상황을 환기시키며 달을 통해 사랑에 대한 갈망과 감정적 거리감 사이의 긴장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처럼 [작품 4]는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실험함으로써 사랑이 지닌 불완전성과 초월성, 그리고 감정의 유동성과 대비를 화면 속에 담아내고자 했다.



[작품 5] Supernatural, 캔버스에 불펜, 검정 제소, 60.9×72.7cm, 2024

그리스 로마 신화 중 에로스와 프시케의 이야기는 사랑의 황홀함과 동시에 그 속에 내재된 위험성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프시케는 신들조차 질투할 만큼 아름다운 인간이었고, 이에 분노한 아프로디테는 그녀가 가장 끔찍한 존재와 사랑에 빠지도록 운명을 정해 버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프시케가 사랑에 빠진 대상은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였다. 에로스는 프시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건 채 사랑을 이어갔다. 하지만 프시케는 끝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에로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만다. 이 장면은 사랑의 위태로움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사랑이란 단순한 열정과 설렘을 넘어 신뢰, 금기,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를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신화적 서사를 바탕으로 [작품 5]는 사랑의 이중성을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에 차용된 에로스와 프시케의 도상은, 서로를 갈망하면서도 금기의 경계에 선 이들의 관계를 상기시킨다. 나는 이 이미지를 통해 둘 인물 사이의 치명적이고도 위태로운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더불어 작품의 배경에는 다트에 찢린 나비의 이미지를 배치하였다. 나비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네 단계를 거치며 변화하는 존재로, 특히 폐쇄된 번데기 상태를 지나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는 마지막 단계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 비상하는 상징성을 지닌다.³⁴⁾ 작품 속 이러한 자유와 경쾌함의 상징이지만, 다트에 찢려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사랑이 때로는 자유를 억압하고, 심지어 고통을 수반하는 모순된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가 구속되는 장면을 통해 사랑의 아름다움 이면에 도사린 파괴성과 위태로움을 부각시켰다.

나는 [작품 5]에서 단순히 낭만적인 사랑의 순간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이 지닌 필연적 위험성과 내재된 모순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강렬하고 매력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와 희생이라는 불가피한 요소들이 함께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작품 전체에 반영되어, 관람자가 사랑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로 인한 고통과 구속까지도 직면하게 만들려고 했다.

34)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나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32375&cid=46639&categoryId=46639>



[작품 6] The boy is mine1, 캔버스에 불펜, 검정 채소, 112.1×145.5cm, 2024

사랑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하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낀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유의 대상을 탐색하려는 또 다른 욕망 역시 내 안에 존재한다. 나는 이러한 내면의 복잡한 심리가 현대 연애의 한 양상인 ‘어장관리’라는 개념으로 표출된다고 생각한다. ‘어장관리’는 이성에게 의도적으로 관심을 보이다가, 일정 거리를 두며 밀고 당기기를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이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단지 기만이나 게임을 그치지 않고, 인간 내면에 자리한 소유 욕구와 선택의 자유 사이의 긴장감이 반영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수동적으로 먹이를 기다리

며 어장 안에 갇힌 채 벗어나지 못하는 물고기처럼, 나는 어장관리 속에서 상대방이 놓인 위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어장관리’란 상대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유지하거나, 반대로 호감이 있음에도 연애로의 발전을 유보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구애를 지속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신뢰와 솔직한 감정의 교류가 건강한 관계 형성의 핵심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나는 본성 깊숙이, 무의식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를 찾으려는 이기심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심리야말로 어장관리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 요인이 아닐까 추측한다. 이는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지닌 결핍과 욕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장관리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작품 6]을 구상했다. 이 작업은 상대를 나의 영역 안에 가두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즉 사랑의 왜곡된 이면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작품에서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와인 잔을 수조로 설정하고 그 안에 갇힌 존재로 백상아리를 등장시켰다. 이는 내가 매력을 느끼는 이성의 특징을 대변하는 상징적 동물로 선택한 것이다. 백상아리는 호주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약 70~125km를 이동하며 광활한 해양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종으로, 좁은 수조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³⁵⁾ 이러한 생태적 특성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군림하는 백상아리의 강인하고 자율적인 이미지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이성의 이미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강인한 존재조차 내가 설정한 '와인 잔 수조' 속에 갇혀 있음으로써, 관계에서의 소유욕과 억압이 어떻게 자유를 억누르고 본래의 생명력을 훼손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35)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https://www.csiro.au/en/news/All/Articles/2013/December/7000km-and-counting-on-the-tail-of-a-great-white-shark?>

[작품 6]에서는 와인 잔의 일부를 화면 밖으로 절단하여 구성함으로써, 잔 내부에 위치한 대상을 더욱 부각하고자 했다. 이는 와인 잔을 단순한 오브제가 아닌, 특정 대상을 가두는 일종의 '사랑의 수조'로 감정의 틀이다. 화면에 와인 잔의 전체 형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일부분만을 배치함으로써, 감상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잔 내부로 유도하고 그 안에 갇힌 대상에 집중하게끔 하였다. 나는 이러한 시선을 통해 대상에게 투영된 소유와 통제의 욕망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이 작품에서 와인 잔은 내적 세계 속 사랑의 구조를 시각화하는 경계이며, 그 안에 갇힌 백상아리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상적 남성을 상징한다. 강하고 자유로운 존재일수록 그것을 붙잡아두려는 욕망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나는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포한 본질적 욕망과 집착,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통해 어떻게 일그러지고 파괴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했다.



[작품 7] The boy is mine2,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조, 112.1×145.5cm, 2024

[작품 6]과 [작품 7]은 서사적·조형적으로 긴밀한 유사성을 지닌 연작이다. 두 작품 모두 특정 동물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이를 제한적인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감정과 권력의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작품 6]에서 등장하는 백상아리는 강렬한 남성성을 상징하며, 나의 '사랑의 수조' 안에 갇힌 욕망의 대

상을 표현한다. 이어지는 [작품 7]에서는 그 역할을 호랑이가 이어받는다. 호랑이 또한 야성적이고 위협적인 이미지를 지닌 존재로, 종종 남성적 에너지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나는 이러한 위상을 지닌 강력한 존재를 깨지기 쉬운 샴페인 잔 안에 가두는 설정을 통해, 작품 속 권력 관계의 역전과 감정의 이중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통제와 억압, 그리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긴장이 내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품고 있는 모순과 불안정성을 시각적으로 환기하고자 했다.

[작품 6]과 [작품 7]은 연작으로 기획되었지만, 화면 구성에서는 의도적으로 차이를 두었다. 두 작품 모두 와인 잔 속에 대상을 배치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잔을 처리함으로써 감정과 상징의 밀도를 달리했다. [작품 6]에서는 와인 잔의 일부분만을 화면에 그려냄으로써, 그 안에 갇힌 백상아리—즉 욕망의 대상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다. 이는 감상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잔 내부로 제한하여, 소유와 통제를 향한 시선의 집중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작품 7]에서는 와인 잔 전체가 화면 안에 들어오도록 구성하여 제한된 공간이 주는 물리적·심리적 압박감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특히 샴페인 잔의 길게 뻗은 상단 구조를 강조하고 호랑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적 특성을 부각시켰다. 더불어 화면 안에 잔을 꼭 맞게 배치하여 상하 여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상이 처한 답답함과 억압의 감정을 더욱 실감 나게 전달하려 했다.

이처럼 [작품 7]은 형식적 측면에서의 변주를 통해 대상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강제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작품 6]에서 제시했던 ‘사랑의 수조’라는 개념적 틀을 확장하고자 했다. 특히 호랑이라는 강인한 상징성과 그것이 처한 협소하고 위태로운 환경 사이의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사랑이 내포한 억압성과 관계의 권력 구조에 대한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작품 8] Do you love me?, 캔버스에 볼펜, 검정 채소, 50×72.7cm, 2024

[작품 8]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나만의 시각으로 형상화한 작업이다. 앞선 [작품 1], [작품 2]에서처럼, 이 작품에서도 토끼는 남성을 상징하고 희화화된 이미지로 등장한다. 이는 연인이란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때로는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특히 실망과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일부 남성들이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육체적 욕망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접해왔다. 즉, 감정의 깊이보다 관계의 물리적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는 다소

주관적인 시각일 수 있으나, 이러한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작품 속 저울은 콘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는 육체적 욕망이 관계에서 우선시되는 현실을 풍자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와 대조적으로 감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었기에, 마음을 상징하는 사과에만 유일하게 색채를 부여했다. 이는 사랑의 감정이 소모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내 바람을 담은 상징적 표현이다. 특히 사과는 심장의 색과 닮은 붉은 색으로 채색해, 나의 진심과 내면의 열망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작품 4], [작품 5]에서는 검정 제소를 흘러내리게 하여 배경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흘러내리는 제소는 형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감정의 유동성과 불안정함,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가 지닌 추상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다. 반면 [작품 8]에서는 검정 제소를 화면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매트한 질감을 살렸다. 이는 단순한 기법적 차이를 넘어, 작품의 주제 의식이 지닌 명확성과 무게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보다 보편적인 현실을 다루고자 한 나의 태도를 시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나는 화면 화면 전체를 채운 짙은 배경 위에 저울과 오브제를 배치함으로써 강한 대비감을 형성하고, 핵심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하고자 했다.

특히 [작품 8]에서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저울은 일반적으로 법과 정의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절대적 기준과 명백한 판단을 환기시키는 사물이다. 본 작품에서는 이 저울을 통해 남성의 마음과 육체 사이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재고 있다. 저울이 콘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구도는 감정보다 성적 욕망이 우선시되는 현실을 드러내며 이는 성적 본능에 치우친 남성의 성향에 대한 나의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다. 절대적 기준을 상징하는 저울 위에 욕망과 감정을 올려놓음으로써, 나는 현대 연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가치가 어떻게 저울질되는지를 날카롭게 시각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나의 시각은 쇼펜하우어가 「성애론」에서 언급한 남성의 본능적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남성의 애정은 소원을 이룬 순간부터 현저하게 감퇴한다. 그는 이미 자기의 것으로 만든 여성보다는 다른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언제나 자신의 상대 여성을 바꾸고자 열망한다”고 서술한다.³⁶⁾ 이는 감정보다 육체적 욕망에 집중하는 경향과 연결되며, 나는 이러한 인식을 [작품 8] 속 저울을 통해 시각화하고자 했다. 저울이라는 형상을 통해 사랑의 감정과 육체적 욕망 사이의 균형 또는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작품 8]은 감정과 욕망 사이에서 무게 중심이 기울어지는 현실을 시각적으로 고발하며, 그 안에 담긴 사회적·심리적 구조를 탐색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36)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성애론」, 조규열 편역, 책세상, 2007, pp.37-38.



[작품 9] Adore, 캔버스에 불펜, 김정 초, 130.3×193.9cm, 2024

[작품 9]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에 깊이 천착한 작업으로, 내가 지금까지 제작한 작품 중 가장 농도 짙은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대형 화면 위에 구성되었는데 이는 사랑이 지닌 감정적 크기와 압도적인 정서를 시각적으로

로 구현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품의 중심에는 화면을 가득 채운 형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로마 신화 속 에로스와 프시케의 이야기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재해석한 것이다. 앞선 [작품 5]에서는 이 조각상이 사랑의 치명성과 위태로움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면, [작품 9]에서는 그 형상을 더욱 확대하고 주체화하여 사랑의 본질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탐구를 시도하고자 했다.

조각상의 형태는 단일한 개체처럼 보이면서도 복수의 형상이 뒤엉킨 듯한 인상을 준다. 나는 이를 통해 사랑이 단일한 감정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심리적 교류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감정에 완전히 잠식된 상태, 즉 사랑에 매몰되어 헤어날 수 없는 순간에 나타나는 상호 간의 결속성과 집착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양가성과 내면의 긴장감을 구현하기 위해 신화 속 이미지와 그 상징성을 차용한 것이다.

작품의 하단부에는 조각상의 형상이 서서히 흘러내리는 듯한 효과를 더했는데 이는 사랑이 고정된 형태가 아닌 비정형적이며 유동적인 감정임을 표현하려는 시도였다. 사랑은 일정한 틀에 갇히지 않는 감정이며 그 안에는 수많은 변수와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작 사랑에 빠진 순간, 우리는 그러한 가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한 개인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한다. 나는 이 같은 점에서 사랑이 지닌 감정적 과급력과 통제 불가능한 힘에 주목하였다.

나는 사랑을 그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감정이라고 믿기에 이러한 인식을 작품에 반영하고자 했다. 강한 명암 대비를 통해 조각상의 입체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사랑이 지닌 감정적 무게와 심리적 중압감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려 했다. 밀도 있는 표현으로 조각상의 형태를 정교하게 구현해 작품의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부각시키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작품 9]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닌 깊이와 무게를 집약적으로 형상화한 작업이다. 화면을 가득 채운 조각상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하단으로 흘러내리

는 형상은 사랑의 강렬함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상징하며 그것이 인간 존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시각적으로 응축해 보여준다. 이 작업을 통해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지를 나만의 조형 언어로 탐구하고자 했다.



[작품 10] For x, 캔버스에 볼펜, 27×27cm, 2024

[작품 10]은 내가 경험했던 전 연인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회화 작업으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과 인식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화면은 표면적으로는 사랑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실제로 겪었던 가볍고 피상적인 사랑의 실체와 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이처럼 [작품 10]은 감정의 양면성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닌 불균질한 층위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개인적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되, 그것이 보다 보편적인 관계

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도록 회화적 장치를 통해 구성하고자 했다. 작품 속 남성을 상징하는 토끼는 마트 카트 안에 '사랑'을 싣고 있다. 이는 연애를 마치 상품처럼 소비하는 현대인의 태도를 풍자한 설정이다. 마트라는 공간은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고르고, 마음이 바뀌면 아무런 부담 없이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환경은 내가 경험했던 사랑의 방식과도 밀접하게 닮아 있다. 내가 만났던 몇몇 연인들은 사랑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책임 있게 지켜나가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쉽게 관계를 시작하고 또 가볍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에게 있어 사랑은 진심 어린 감정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일시적인 감정처럼 느껴졌으며 이는 나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겨줬다. 이 작품은 그와 같은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소비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상화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자 했다.

나는 작품 속 담긴 사랑의 감정을 반짝이는 소재로 시각화하였다. 이는 겉보기에 아름답고 설레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트 카트 속에 담긴 소비 가능한 대상으로 형상화된 사랑이다. 이처럼 사랑이 카트에 담긴 상태로 표현된 것은 그 감정이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거나 일시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결국, 작품이 제기하는 질문—'이 사랑은 과연 진실한 감정이었는가, 혹은 순간적인 충동에 불과했는가'—를 통해 감정의 진정성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이 작품은 내가 경험했던 사랑이 순간의 휘발성 강한 감정이었음을 드러내며 그로 인해 느꼈던 허무함과 상처를 담아낸다.

결국 [작품 10]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볍게 대하고 소비하듯 접근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시각화한 작업이다. 누군가에게는 진심을 다한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트에서 상품을 고르듯 쉽게 선택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감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현대 연애관의 경박함과 일회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나의 상처와 경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에 더불어서 감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애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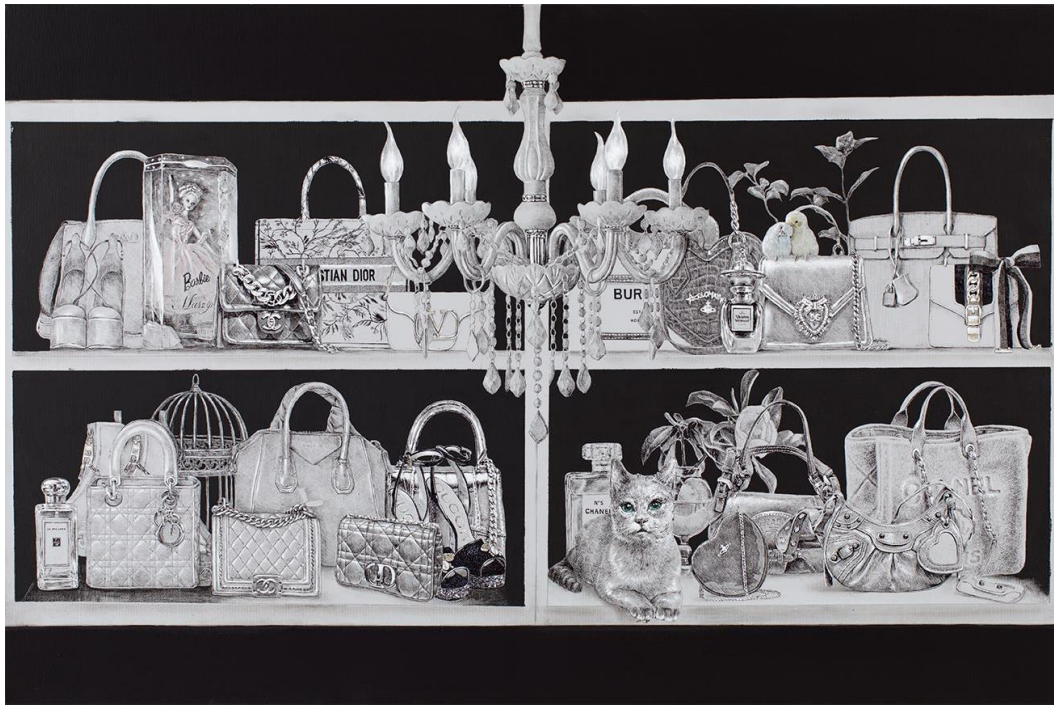
했다. 사랑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보다 진중하고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감정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이 이 작업의 궁극적 의도라 할 수 있다.



[작품 11] Fake love,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소, 27×27cm, 2024

[작품 11]은 토끼 형상의 조형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업으로 앞선 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토끼는 남성 혹은 사랑의 대상을 상징한다. 본 작업에서 나는 이 형상을 알루미늄 풍선을 연상시키는 반짝이는 질감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랑의 외형과 내면의 괴리를 강조하고자 했다. 표면적으로는 매끄럽고 빛을 강하게 반사하여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이 비어 있는 가벼운 구조로서 조형물의 물성 자체가 사랑의 허상성과 공허함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조형적 측면에서 나는 하이라이트 부위에는 흰색 제소를 사용하여 강한 빛 반사를 표현하고, 그림자 부분에는 검정색 제소를 적용함으로써 입체감과 함께 내면의 깊이를 시각화하였

다. 이러한 강한 명암 대비는 화면 속 대상이 실체라기보다 허상처럼 느껴지도록 유도하며 관람자에게 정서적 거리감을 부여한다. 이는 곧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 즉 외형적으로는 단단하고 확고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연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나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작품 제목이 암시하듯 [작품 11]은 ‘가짜 사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허상에 불과할 수 있으며,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한 감정일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매혹적이지만 정작 그 내면은 텅 비어 있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나의 회의적 시각을 시각적 언어로 풀어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속 토끼는 단지 형상만을 지닌 조형적 이미지일 뿐, 실제 생명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다. 그 안에서는 따뜻함이나 생동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차갑고 인공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일반적으로 토끼는 귀여움, 순수함, 생명력의 상징으로 인식되지만, 본 작품에서는 이러한 통념을 전복시켜 토끼 형상을 의도적으로 비생명적이고 비정감적인 존재로 표현하였다. 이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가 흔히 믿고 의지하는 감정들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허상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나는 조형 요소에서 생명력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사랑의 허구성과 모순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겉으로 보기에 단단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형상이 실질적으로는 텅 빈 구조라는 설정은,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외형적으로는 강렬하고 확실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실체 없는 공허함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표현은 감정 자체에 대한 회의이자,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랑의 이미지—즉 이상화된 감정의 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작품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닌 시각적, 감정적 외피와 그 내면 사이의 괴리를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감정들조차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허구일 수 있으며, 그 실체는 끊임없이 질문되고 해체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했다.



[작품 12] Fetish, 캔버스에 볼펜, 검정제소, 65.1×90cm, 2023

이전 작업들이 주로 남성과 여성 간의 심리적 역학, 감정, 성적 에너지에 집중되었다면, [작품 12]는 사랑에서 비롯된 결핍이 물질적 욕망, 특히 사치재에 대한 대체 욕망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탐구한 작업이다. 나는 이 작품을 통해 사랑이 단지 타자에 대한 감정적 집착에 그치지 않고 때때로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결핍은 명품이나 사치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내면에 자리한 또 다른 형태의 사랑—곧 결핍을 메우고자 하는 갈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 12]는 단순히 부나 소비에 대한 탐닉을 다룬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감정의 공백이 물질로 치환된 양상을 이미지로 풀어낸 시도다. 작품에서는 전통 회화 형식인 ‘책가도’를 차용하되, 입체감은 철저히 배제하고 검정 제소로 채운 평면적 배경 위에 회색 윤곽선만을 남겨 현실과 단절된 비현실적

이자 심리적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는 내면적 욕망이 투사되는 ‘무의식의 진열장’과 같은 개념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작품 속 오브제들은 단지 물질적 대상이 아닌 내면의 감정적 결핍과 욕망을 상징화한 상징체들이다. 중심에 놓인 상들리에에는 물질적 부에 대한 동경을 시각화한 요소로 가장 직접적인 소비 욕망의 투영체이다. 바비인형은 외모지상주의적 기준에 부응하려는 내면적 압박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상화된 여성상에 대한 무의식적 동조를 상징하며, 내 자아의 분열된 욕망을 함축한다. 한 쌍의 앵무새는 감정적 유대와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존재로 ‘잉꼬부부’라는 표현에서 착안한 이 상징은 상대와의 안정적 관계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작품 12]는 결핍된 사랑이 어떻게 물질에 대한 강박적 욕망으로 치환되는지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작업이다. 이 작품은 감정과 소비, 상실과 대체 사이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인간 내면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결핍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고양이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오브제 중에서도 감정의 매개체이자 초월적 상징으로 설정하였다. 고양이는 작품 속에서 일상성과 판타지, 현실과 무의식을 잇는 존재로 기능하며, 화면에 생동감과 신비로움을 부여한다. 조형적으로는 고양이를 통해 감정의 흐름을 시각화하거나 화면의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고양이는 내 작업 세계에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경계자이자, 정서적 심상을 확장하는 촉매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화면 구성에 있어서 오브제들은 각기 상이한 의미와 상징을 지니며 나는 이들 중 일부에만 선택적으로 색채를 부여함으로써 상징적 위계를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감정의 중심축이 되는 요소들과 부차적 요소 간의 시각적 중요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관람자가 감정의 흐름과 상징체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작품 12]는 표면적으로는 물질적 욕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그

근원에는 사랑에서 비롯된 정서적 결핍이 자리하고 있다. 본 작업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부재와 그것이 불러온 심리적 공허가 어떻게 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전이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탐구한다. 나는 감정적 갈망이 물질적 오브제로 치환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이고 내밀한 욕망이 외부 세계의 구체적 형상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조형적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물질 자체에 대한 찬미나 비판을 넘어서 감정의 잔여물이 어떻게 물성의 형태로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나의 내면에서 비롯된 결핍과 욕망이 오브제라는 구체적 형상을 통해 외화되는 이 과정은 단순한 형상 구현 이상으로 자아와 사회, 감정과 사물 간의 복합적 관계망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기능한다.



[작품 13] Fetish 2, 캔버스에 볼펜, 검정 제소, 80.3×130.3cm, 2024

[작품 13]은 [작품 12]에서 구축한 구성적 틀을 바탕으로 하되, 그 내용과 주제를 더욱 확장하고 심화시킨 작업이다. 자본주의적 사치재에 국한되었던 이전 작품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 작품에서는 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욕망의 스펙트럼을 탐색하고 이를 조형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했다. 나는 개인이 지닌 욕망의 양상을 세분화하고 책장의 각 구획마다 상징적 오브제를 배치함으로써 내면의 열망을 마치 사전처럼 정리하고 진열했다. 작품의 중심에는 기도하는 천사의 형상을 배치했다. 이 천사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지만, 나에게서는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염원을 투영한 상징적 자아에 가깝다. 천사는 나를 대신하여 소망을 드러내는 매개체이며 그 중심성을 통해 작품 전체의 구조를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화면을 네 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서로 다른 종류의 욕망을 상징하는 오브제들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작품 13]은 단순한 오브제의 집합을 넘

어, 욕망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분류하고 기록한 시도로 자리매김한다. 이 작업은 욕망의 근원을 성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세계를 형성하는지를 조형 언어로 풀어낸 일종의 ‘감정 지도’라 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 - 사랑에 대한 환상과 낭만적인 공간

이 구획은 내가 사랑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와 환상을 시각화한 영역이다. 나는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의 매혹적인 측면을 ‘칵테일’이라는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했다. 칵테일은 그 맛과 색깔에서 오는 유혹적인 매력을 지니지만, 동시에 은근한 쓴맛을 품고 있는 음료다. 이는 사랑이 지닌 달콤함과 동시에 내포된 고통, 즉 사랑의 이중적 감정을 상징한다. 칵테일 옆에 배치한 하트 모양의 꽃다발은 사랑의 걸모습과 내면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 꽃다발은 실제 꽃이 아니라 광택 있는 풍선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랑이 걸보기에는 화려하고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예측 불가능하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불안정한 감정임을 암시한다. 불타는 키스를 나누는 연인의 조각상은 사랑의 열정과 욕망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오브제다. 사랑은 정서적 유대일 뿐 아니라 강렬한 감각의 결합이기도 하며, 이 조각상은 그 치열한 에너지와 감정의 농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나는 체스의 퀸과 킹 말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남녀 간의 권력 구조와 관계의 역학을 시사하고자 했다. 사랑은 항상 평등하거나 이상적이지만은 않으며, 종종 권력의 비대칭 속에서 작동하기도 한다. 체스 말은 상대에 따라 역할이 바뀌는 관계의 유동성과 그 안의 긴장감을 표현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이 구획은 사랑이 지닌 낭만적 환상과 그 이면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위태로움을 함께 보여주며, 사랑이라는 감정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조형적으로 탐색한 공간이다.

오른쪽 하단 - 일탈과 휴식에 대한 갈망

이 구획은 내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 휴식을 향한 갈망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웨딩 슈즈를 자동차 뒤편에 배치한 것은 사랑의 결실인 결혼에 대한 기대와 그 제도적 틀에서 비롯되는 억압감, 그리고 그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기제(機制)이다. 자동차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와 가능성을 상징하며, 이로써 사랑이라는 관계의 안정성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일탈의 충돌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하나의 화면 안에 공존하게 했다. 물고기와 산호초는 나에게 이상적인 휴양지의 이미지로 바쁜 일상과 감정의 소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완전한 쉼'에 대한 내적 욕구를 반영한다. 물고기라는 유동적 존재는 현실을 떠도는 듯한 내 심리 상태를, 산호초는 그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안식처의 이미지를 대변한다.

이처럼 오른쪽 하단 구획은 일탈, 도피, 휴식이라는 복합적인 욕망의 층위를 드러내며 감정적 피로감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면의 심리를 시각화한 공간이다.

왼쪽 상단 - 장식적인 요소들과 오브제를 향한 욕망

이 구획은 장식적이면서도 물질적 소유욕을 자극하는 오브제들로 구성되었다. 중심에 배치된 샹들리에에는 단순한 인테리어 장식을 넘어 부와 화려함에 대한 갈망을 상징한다. 찬란한 조명 아래 드러나는 샹들리에에는 공간을 장식하는 동시에, 내면의 공허를 외형으로 채우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바비인형은 사회가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강요하는 외모적 기준에 대한 나의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다. 나는 이 인형을 통해 스스로가 사회적 시선에 맞춰 '꾸며지고자' 하는 욕망과 그에 대한 저항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을 시각화하고자 했다. 고양이는 이러한 경직된 오브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을 암시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고양이는 초월성과 생동감을 상징하며 화면 전체에 유연성과 정서적 균형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상징적 동물인 고양이는 작품의 환상성과 개인적 감정을 매개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향수병은 냄새라는 감각을 통해 타인에게 나를

인식시키는 매개물이자 나 자신을 표현하는 사치재로 작용한다. 나는 향수를 통해 외적 장식과 자기표현의 욕망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했다. 때문에 이는 내면 깊숙한 물질적 열망, 외부 시선에 대한 민감함, 자기 표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영역으로 나의 감정과 욕망이 어떻게 장식적 오브제로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왼쪽 하단 - 사랑과 사유가 머무는 비현실적 공간

이 구획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감정과 사유가 머무는 일종의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중심에 위치한 욕조는 위생이라는 기능적 정의를 넘어서 나에게 깊은 사색과 해방감을 경험하는 장소이다. 반신욕을 할 때마다 느꼈던 정서적 이완은 곧 나의 내면적 안식에 대한 갈망과 맞닿아 있으며, 욕조는 그 감정을 시각적으로 대변하는 오브제로 기능한다. 사슴은 현실과 환상을 잇는 경계에 선 존재로, 화면에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불어넣는다. 전통적으로 사슴은 신비롭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으며 나는 이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비현실적 공간 안에서 사유와 감정이 자유롭게 흐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한 쌍의 앵무새는 이전 [작품 12]에서는 친밀한 관계와 애정을 상징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사랑이 단선적이거나 고정된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갈등을 겪는 복합적인 감정임을 나타낸다. 하지만 화면 속 자물쇠는 이러한 감정의 유동성 속에서도 결국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 곧 신뢰와 결속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앵무새의 시선 차이와 자물쇠는 사랑의 긴장과 화해, 거리와 친밀함이라는 이중적 감정들을 담고 있다. 이는 에리히 프롬이 말한 사랑의 실천적 본질, 즉 진정한 사랑은 갈등을 넘어서려는 의지 속에서 유지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이처럼 이 구획은 정서적 복잡성과 사유의 깊이를 담은 상징적 장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랑의 본질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드러낸다.

III. 결 론

이 논문은 가장 개인적인 나의 욕망에서 출발하여, 사랑과 소유의 욕망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를 회화적 언어로 풀어내려는 시도였다. 사랑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지극히 사적인 감정을 중심에 두고, 그 감정이 결핍으로 이어지며 때로는 자본주의적 상품에 대한 갈망으로까지 확장되는 복잡한 심리 구조를 다각도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내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사랑은 나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이자, 가장 불완전한 감정이었다. 그 모순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이야말로 내가 회화를 통해 끊임없이 탐구하고자 했던 욕망의 본질이며 이 작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였다.

<Fancy Fetish> 시리즈 작업을 진행하며 나는 사랑과 소유 사이를 오가는 복잡한 감정들을 시각화하고자 했다. 작업을 이어가며 이 감정들이 단지 나만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 정서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갈망을 자극하고 결핍을 감춘 채 소비를 유도한다. 나는 그 구조 속에서 나의 욕망이 어떻게 형성되고, 소비의 논리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섬세히 관찰하고자 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이론적 설명이나 사례의 나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경험과 내면의 서사를 바탕으로 감정의 결을 하나씩 풀어내는 작업이었다.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나는 스스로의 욕망을 직면하고 해석하며 그 복합적인 감정의 층위를 드러내고자 했다.

나의 작업은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감정을 형상화하고 반복적인 노동과 오브제화를 통해 욕망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예술적 실천이었다. 조형적으로는 선에 기반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왔으며, 특히 볼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일상성과 집요함이 교차하는 노동의 과정을 화면에 담아냈다. 반복적인 선 긋기와

해칭 기법은 감정과 욕망이 단발적인 감흥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혼적임을 강조한다. 전체 화면은 흑백으로 구성해 색채를 배제함으로써 조형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으며, 일부 오브제에만 제한적으로 색을 사용하여 욕망의 강도와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부각시켰다. 작품 속 오브제들은 마치 박제된 물건처럼 배열되어, 비물질적 감정을 소유 가능한 대상으로 물질화한다. 샹들리에, 하트 풍선 등의 상징물은 자본주의 소비사회가 형성한 욕망의 구조를 암시하며, 이들을 책가도 형식으로 나열함으로써 감정의 분산된 조각들을 하나의 구조적 틀 안에 체계화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이번 연구는 사랑과 소유, 갈망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했다. 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며,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넘나드는 내 소유의 욕망을 회화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서사가 타인에게도 공감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길 바랐으며, 반복적인 선 긋기와 노동의 과정을 통해 내면의 갈망을 직면하고 점진적으로 감정을 해소해 나갈 수 있었다. 욕망은 쉽게 충족되지 않는 지속적인 갈망이며 나의 반복적인 작업 과정은 그러한 욕망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나는 감정과 욕망의 층위를 탐색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심리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환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 시도가 개인적 욕망 탐구에 집중할 만큼, 흑백 화면이라는 제한된 조형 언어는 다양한 욕망을 폭넓게 표현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비물질적 감정의 영역에서도 사랑이라는 특정 감정에만 초점을 맞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사랑과 소유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를 넘어 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끊임없는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욕망의 층위를 교차·중첩시키며, 회화라는 매체 안에서도 보다 다양한 조형 언어와 실험적인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표현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내면의 갈망을 새로운 형식과 감각으로 확장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나는 욕망은 단지 충족이나 해소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내적 동력이자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욕망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될 것이며, 나는 그것을 꾸준히 표현하는 일을 앞으로의 작업 속 중요한 동기로 삼을 것이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작업하며 쌓아온 모든 흔적들은 하나의 언어가 되어 이 논문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사랑과 소유욕망에 대한 나의 고찰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내 삶과 감정의 깊은 층위에 닿아 있는 문제였다. 이 논문을 쓰는 과정은 곧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직면하는 여정이기도 했다.

내가 써 내려간 이 기록이 단지 나만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내면에도 작게나마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박찬국 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읽기』, 세창출판사, 2023.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저, 조규열 역, 『성애론』, 문예출판사, 1999.

에리히 프롬(Erich Fromm) 저, 정성환 역, 『소유냐 삶이냐』, 홍신문화사, 2007.

에리히 프롬(Erich Fromm) 저, 차경아 역, 『소유냐 존재냐』, 까치글방, 1996.

에바 헬러(Eva Heller) 저, 이영희 역, 『색의 유혹 1: 재미있는 열세 가지 색깔 이야기』, 예담, 2002.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 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청미래, 2002.

자크 라캉(Jacques Lacan) 저, 권택영 역,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4.

2. 학위 및 학술논문

김백균, 「선적 사유」, 현대미술학논문집, (13), 187-208, 2009.

박아름, 「겹선으로 치환(置換)되어 표현된 이미지 연구」, 석사논문, 성균관대학교, 2016.

윤지애, 「JEFF KOONS의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 "The New~Made in Heaven"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朝鮮大學校 大學院, 2002.

정하임, 「선과 반복구성을 활용한 장신구 조형성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12.

3. 웹 사이트 & 디지털 아카이브

네이버 국어사전, '소유욕'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11b78fc1ef34915a533bbb652e2a014>

네이버 국어사전, 두산백과, '이성애(異性愛)'

https://dict.naver.com/dict.search?dicQuery=%EC%9D%B4%EC%84%B1%EC%95%A0&query=%EC%9D%B4%EC%84%B1%EC%95%A0&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네이버 지식백과, '전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50755&cid=42627&categoryId=42627>

네이버 지식백과, '볼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3332&cid=40942&categoryId=31888>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미술용어사전, '해칭(hatching)'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5388&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책가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2921&cid=46660&categoryId=46660>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나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32375&cid=46639&categoryId=46639>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https://www.csiro.au/en/news/All/Articles/2013/December/7000km-and-counting-on-the-tail-of-a-great-white-shark>

ABSTRACT

Study on the Visual Expression of Multilayered Desire through Love and Possession

– Focusing on my work –

Park Jae Hee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analyzes the theme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exhibited in my Master's degree graduation show *Fancy Fetish*, held in November 2024. The term "Fancy Fetish" can be interpreted as "a glamorous obsession," and it originates from my desire to expose the hidden desires that dwell within me. In society, revealing one's personal desires is often a cautious and limited act. For me, art is the only medium through which I can express my repressed inner self—an emancipatory path that allows me to break free from social norms and freely articulate my emotions and desires. Within this context, my work unfolds around the key themes of emotion and desire—particularly focusing on "love" and "possession." I believe that "the world cannot function without love," and this philosophy forms the foundation of my life. The desire for possession,

which is closely linked to the duality of love, plays a central role throughout my artistic practice.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dual nature of love that I have personally experienced, my longing for possession, and the structure of desire as shaped by capitalist society. In my work, desire is not expressed directly but is instead symbolized through objects. These objects carry intimate symbolic meanings and serve as visual surrogates for my internal desires. I employ ballpoint pen as my medium, layering linear elements repeatedly as if engraving desire onto the surface. Through this labor-intensive process, my inner cravings seem to gradually dissipate, and when facing the completed object, I often feel as though I truly possess it. Although I grew up without clear material deprivation, an intensifying sense of emotional emptiness and possessiveness over time became a major driving force behind my work. This desire extended beyond material possession to the longing embedded within the emotion of love, and further, to the latent will to dominate within heterosexual eroticism.

Building upon these themes, this thesis investigates how latent human desires are visualized and structured in the process of artistic creation. In a capitalist society, desire tends to be standardized and distributed within a context of external stimuli and consumption, which threatens the autonomy of individual emotions and needs. My work reflects how such structures infiltrate the inner self, and through art, I attempt to reveal and confront this phenomenon. Rather than remaining an expression of personal experience, my work expands into a broader reflection on universal sentiments and values by reinterpreting socially constructed emotions and desires through visual

language.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re, love, and possession and the affective structures shaped by capitalism, I explore how art can evoke and question repressed emotions in reality. Ultimately, this thesis finds its significance in synthesizing the multilayered concept of “desire” both theoretically and visually, while investigating emotional structures shaped by capitalism through the lens of personal experience. Moreover, I hope that art, by mediating desire, offers a moment of self-reflection and allows individuals—who live in a regulated society disconnected from their inner selves—to confront their suppressed emotions and longings.